

IPARK현대산업개발, 취약계층에 겨울나기 온정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겨울철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용산구와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증품을 전달하고, 연말까지 지역별 수요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IPARK현대산업개발



덕성여대, 학생 AI 역량 진단·인증체계 구축

덕성여자대학교가 인공지능(AI) 역량평가 기업 코드프레소와 손잡고 학생들의 AI 역량을 진단·인증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덕성여대는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에서 코드프레소와 산학협력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AI 역량 진단·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한편,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역량 인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사이버대, 인도 대학과 통합건강 교육협력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인도의 요가 특성화 대학과 손잡고 요가와 명상, 전통 의학 등 통합건강 분야 교육 교류를 추진한다. 서울사이버대는 지난 13일 인도 벵갈루루의 S-VYASA 대학과 국제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S-VYASA는 전통 요가를 현대 과학과 접목해 교육·연구하는 대학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명대

독일과 게임 산업·교육 교류

상명대학교가 독일 게임 산업 사절단을 초청해 교류 행사를 열고, 국내외 게임 산업 및 교육 현안을 살폈다. 상명대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에서 독일 게임 산업 사절단과 한·독 게임 산업 및 교육 분야 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카를스루에 게임허브 대표, 바덴뷔르템베르크 인터내셔널 디렉터, 주한독일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독일 게임 기업 및 기관 소속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상명대 SW융합학부 게임 전공 학생들도 참여해 방문단과 교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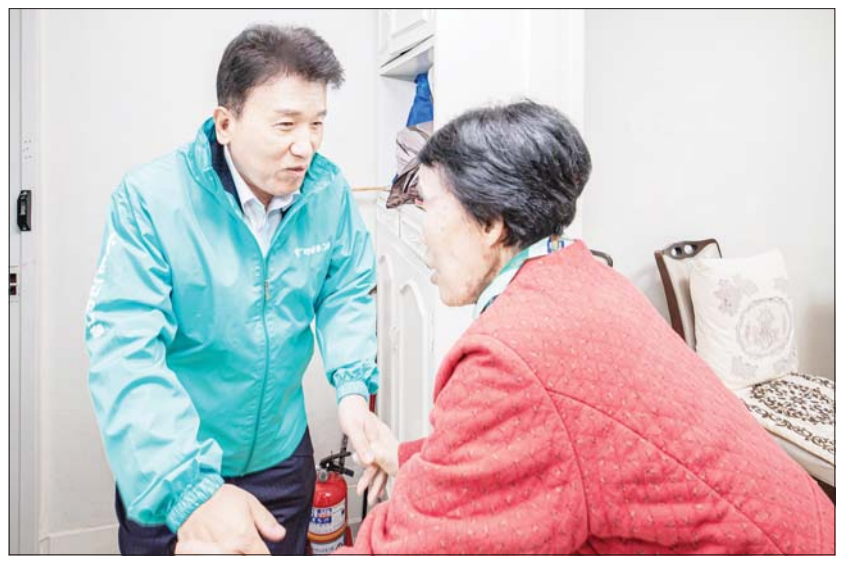
/김수정 기자 kcrystal@

인 사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한민족센터 본부장 김병수 △편집총국장 직무대행(편집국장 직무대행 겸임) 강영두 ◇부실장·부국장·부본부장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 겸임) 이동칠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영상미디어부장 겸임) 최윤정

부 음 ▲김달환씨 별세, 김관숙·승기(MK스포츠 대표이사)·관순·승진(MK스포츠 이사)씨 부친상, 신상태·주경천씨 장인상, 박혜란씨 시부상=22일 오전 4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대구 도림사추모공원. 02-2290-9457.

하나금융, 어르신 1000명에 온정… 안전한 노후 뒷받침

독거·거동 불편 어르신 각 500명 대상
주거 안전용품·보행보조기 맞춤 제공
함영주 회장, 가정 방문해 온정 전달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한 함영주 회장(왼쪽)이 어르신의 주거환경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취약계층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 안전용품과 보행보조기를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거 안전용품 및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거 어르신 500명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부터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각 가정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 안전용품을 설치했다. 또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이불과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살폈다.

함 회장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룹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독거 어르신 500명에게 미끄럼 방지매트, 이동식 손잡이, 화장실 안전손잡이, LED 센서등, 화재감지기, 가정용 소화기, 자동소화 멀티탭 등을 지원한다. 주택 구조와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낙상과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0명에게는 안전보행기를 제공한다. 보행보조기 사용법과 안전 보행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신체기능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이후에는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와 물품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과 의료 소외지역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안과 검진'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팜젠사이언스, ESG 4회 연속 투자적격

서스틴베스트 하반기 평가 A등급

팜젠사이언스가 지배구조, 인적자원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반에서 체질 개선을 이뤄 4개 반기 연속 '투자적격'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팜젠사이언스는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2026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하반기 국내 1328개 기업을 총 7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최고 등급은 AA, 최저 등급은 E인 가운데, A등급은 '투자적격' 등급으로 전체 기업 중 28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팜젠사이언스는 '제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섹터에 속하며 환경 부문 '혁신 활동'과 사회 부문 '인적자원 관리'에서 동일 섹터 평균을 상회하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의 보수', '관계사 위험', 'ESG경영 인프라' 등 주요 지표에서 섹터 평균치를 웃돌며 경영 투명성을 입증했다.

팜젠사이언스는 자본시장 내 기업 신뢰도를 확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좋은 기업을 넘어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애경산업, 취약아동 1004명에 체험 선물

아동 권리의 날 맞아 행사 개최

애경산업이 '세계 아동 권리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1004명에게 차별 없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가치인 '아동의 놀 권리' 실현에 앞장섰다.

애경산업은 지난 20일 경기 부천에 위치한 대형 키즈카페 점핑몬스터에서 광명시청, 광명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보듬봉사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 일대 지역아동센터 30개 곳 소속 어린이와 인솔자 등 총 1004명이 참가했다. 평소 여가 생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애경산업은 아동센터별 형평성을 고려해 참여 기회를 고르게 배분했다.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어린이가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애경산업이 11월 20일 세계 아동 권리의 날을 맞아 행복 키즈카페 나들이 사업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애경산업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가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아동 권리의 날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차별 금지·아동 최선의 이익·생존과 발달의 권리·아동 의견 존중을 4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청하 기자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창립 74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6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 교구를 제작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삼표그룹, 창립 74주년 장벽 없는 나눔

이동약자 시설 접근정보 수집
시각장애아동 점자 교구 제작

삼표그룹이 창립 74주년을 맞아 일상 속 장벽을 낮추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22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매년 창립 기념일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기위해 이동약자를 위한 지도 만들기 활동 '계단뿌셔 챌린지'와 시각장애아동의 학습을 돕는 '점자 교구 제작' 활동을 펼쳤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계단뿌셔 챌린지에는 삼표그룹 임직원을 비롯해 성동구 직장인 자원봉사자, 청년봉사단체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집이나 회사 근처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을 찾아 계단·경사로·문턱 정보를 확인한 뒤 비영리 스타트업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했다.

수집한 500여 곳의 정보는 휠체어 및 영유아 동반 유모차 이용자, 보행보조기를 쓰는 고령자 등 이동약자가 방문 전에 시설 접근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삼표그룹은 참여 인원에 맞춰 성동구 관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선물도 전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한진, 상생 물류·주주친화 경영 성과

ESG 평가 4년 연속 통합 A등급

한진이 ESG 평가에서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대표 종합물류기업으로서 ESG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진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하는 '2026년 ESG 평가'에서 환경(E) 부문 A등급, 사회(S) 부문 A+등급, 지배구조(G) 부문 A등급을 받아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진은 이번 평가에서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가운데,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 사회 부문은 전년 A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며 전 부문 중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고, 지배구조 부문 역시 전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는 환경 보전과 상생 경영, 주주친화 정책 등 E·S·G 전 영역에 걸친 균형 있는 실천이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사회 분야에선 소상공인과의 상생 물류 지원이 주효했다. 한진은 소상공인 맞춤형 물류 플랫폼 '원클릭 택배 서비스' 운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택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